

## 노사대표 간담회 - 노사합의

경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지금은 경제위기가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회의를 이곳에서 주재하지만 오늘 회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각별히 기대를 크게 하고 나왔습니다. 요즘 경제가 위기라는 의식을 갖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단기 어느 쪽으로 봐도 우리 경제가 위기다 말할 만큼 부정적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경제의 양극화 때문에 서민들의 경제가 아주 체감경기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경제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라고 보든 아니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위기가 아니라도 자칫 잘못 대응하면 위기가 올 수 있고 또 위기라 할지라도 잘 대응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모두 공감하는 경제걱정거리가 있는데 그중 중요한 것 하나가 역시 노사 간의 관계입니다. 대체로 보면 노동계에서도 지금 운용하고 있는 시장의 규칙과 경제적 제도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한편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규칙이 있고 재계에서도 몇 가지 규칙을 새롭게 다듬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서로가 다릅니다. 어느 한쪽만의 의견을 듣기 어렵고 양쪽 다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결론을 안낼 수도 없습니다. 쌍방이

다른 주장하고 있고 결론을 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지난날 여러 나라 역사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합의를 이뤄낸 쪽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는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필요하면 양보하고 타협해서 모두가 불만스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정부가 적절한 판단을 통해 작심하고 밀고 가는 것입니다. 대체로 정부가 밀어붙이는 경우도 1차적으로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한 합의, 국민적 합의를 모으려는 노력을 해온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그것이 안됐을 때 정부가 결단을 내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방향을 잘못 잡아 양쪽의 반대에 부딪쳐 어려워지고 좌절되고 곤두박질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엔 정부정책이 성공을 거둬서 성공사례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건 합의를 이뤄낸 쪽은 실패가 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합의를 이뤄낸 쪽은 성공을 거뒀고 그 성공의 성과가 눈부시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달라진 후 조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 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새로운 조정과정에서 큰 갈등이 생기고 합의한 것보다는 부작용이 있어도 이름을 남기고 합의를 이뤄낸 것은 이름은 못 남기지만 사건으로 남고, 합의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화려한 이름이 남긴 했지만 결국 평가는 합의를 잘 한 쪽이 국민 경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참여 정부는 노사문제에서 혁혁한 공로나 이름을 남기지 않고 국민적 역량으로 합의한 후 한 당사자로 끼어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모셨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난관이 있겠지만 그런 방향에서 대화합시다. 작년에

도 이런 생각으로 시도 안한 건 아니지만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쌍방 간에서의 여건은 작년보다 나아진 것 같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나아졌다기 보다는 노사 양쪽을 대변하는 조직과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대하는 입장이 대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고무적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노·사·정이라 했는데 기업 쪽에서도 중소기업이 어렵고 노동계 쪽에서도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어려워 옛날엔 노사정 3자 대화면 족하지 않았나 했는데, 지금은 노사정 5자 대화 정도 수준으로 가야 하는 게 현실 아닌가 생각하고 그렇게 틀을 맞추려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규범보다 존중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노동부에서 발제하겠지만 노사정위에서 여러 노력은 했지만 노사정위원회가 금방 정상 가동되지 않더라도 과도기를 거쳐서 임시적 대화 체제를 만들고 제 기능을 해서 중요한 일 수행하기 바랍니다. 노사정위 위상을 좀 더 다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정부도 그에 맞게 긍정적으로 임할 생각이다 어느 방향이든 여러분이 합의해주시면 그 합의를 정부도 다른 어떤 규범보다 존중해나가고 싶습니다. 좋은 토론 있기 바랍니다.